

대순진리회 신앙체계의 모더니티(근대성)에 관한 연구

- 칸트 도덕신앙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대현*

■ 국문요약

근대성은 인간 본연의 삶을 향한 범개인적 조건이자 요구의 내용이다. 억압과 대립·불평등으로부터 자유·평등·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문적 지향점을 향한 전방위적 움직임이 극대화된 시기가 바로 근대라는 시기의 의미일 것이다.

근대를 언급하고 근대성을 고민한다는 것은 한 국가 조직의 정신적 자각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계사적으로 유럽이 근대를 향한 역사적 활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계 문화와 문명에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 한국의 근대적 업적은 그 위대성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강증산 성사가 이루었던 근대적 유산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유럽의 경우를 생각할 때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유럽은 자국의 근대 유산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것은 자국의 정신적 유산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의 결과이다.

한국 근대정신의 근본 원류는 강증산 성사의 사상과 그의 천지공사

* 대전대학교 강의교수, E-mail: ditto12255@hanmail.net

의 업적에 있다. 대순진리회는 그 강증산 성사를 종통으로 이은 종단으로 그의 근대적 생명력이 조정산 도주와 박우당 도전을 통해 종통으로 이어져 윤리 도덕의 승상과 실현을 새로운 시대의 신맥으로 삼고 있다. 유럽 근대의 문을 연 칸트가 도덕신앙을 통해 절대자를 이해한 점은 윤리 도덕을 숭상하는 대순사상의 종교관과 접점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순사상의 근대적 가치를 재확인하게 된다.

주제어: 모더니티(근대성), 대순진리회, 이성신앙(도덕신앙), 윤리, 도덕

I. 서론

II. 모더니티(근대성)의 요건과 도덕신앙(이성신앙)

III. 대순사상의 윤리도덕적 지향성과 도덕신앙(이성신앙)적 특성

IV. 결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순사상의 윤리도덕관을 근대 독일 철학자 칸트의 도덕신앙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대순사상의 윤리도덕관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가 윤리적 내용의 해석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대순사상 전체 체계에서 윤리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중요도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집중했다. 그 분석의 틀을 칸트의 도덕신앙 개념에서 가져오기로 하며 이것이 본 소고(小考)의 연구 방법이다.

윤리라는 말은 원래 ‘같은 종류(同類)의 사물(事物)에 있는 공통적 본질이나 조리(條理)’(擬人必于其倫: 『禮記』, 「曲禮」; 絕於等倫: 『漢書』, 「甘延壽傳」)를 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종류의 사물이 인간으로 대체되어 지금의 윤리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는 도덕(道德)의 의미와 동의어로 쓰인다. 또한, 인간이 모여 이룬 공동체를 사회(社會)라고 하는데, 윤리는 바로 사회를 이루는 여러 인간 사이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각기 다른 체질과 개성을 가진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형성한 윤리는 바로 개인적 삶의 완성과 사회적 삶에 대한 조화와 평화의 근본 이치이다.¹⁾ 따라서, 개인적 인간 완성과

사회적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순진리에서 윤리도덕의 가치는 깊이 성찰해야 할 주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순진리의 기본 교리와 지침의 전반적인 구성은 윤리도덕 체계의 구성과 그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순진리의 핵심을 서술한 교리개요를 보면 충분히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 성(誠)·경(敬)·신(信)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안신(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수도의 요체와 수행의 훈전이 윤리도덕의 숭상 속에 의미상의 종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윤리도덕에 대한 대순진리의 입장을 ‘숭상(崇尚)’이라는 말로 드러낸다는 것은 윤리도덕이 신앙 수행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한 언급이다.

대순사상의 이러한 방향성은 근대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의 종교철학에서 충분히 그 해석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계몽주의의 완성자이자 서양 근대 철학의 거대한 체계를 이룬 칸트는 계몽의 가치와 그의 철학 체계를 기반으로 종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그것이 바로 이성신앙(도덕신앙)이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근거하고 대순진리회의 교리개요의 내용을 통한 상관성에 기반하여 글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대순사상의 종교적 지향성이 윤리도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칸트의 이성신앙으로 해석하기 위한 글의 전개는 우선 칸트가 말한 이성신앙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의 교리 전반을 구성하는 윤리적 서술들을 개관하고 그 비중과 그 강조점들을 충분히 확인한다. 그렇게 확인된 자료를 II장에서 형성한 칸트의 이성신앙의 개념들을 통해 분석하고 종합한다.

1) 백종현, 『철학의 주요개념』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p.121.

II. 모더니티(근대성)의 요건과 도덕신앙(이성신앙)

1. 근대성의 요건

근대란 현재와 가까운 과거 역사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문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시간적 선후의 개념이기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사회적 수면 위로 맹렬하게 떠오른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와 평등, 평화에 관한 주제는 개인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제시된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다. 근대란 바로 이러한 가장 인간다운 주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다루었던 시기를 말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고대와 중세는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 절대자에 대한 복종과 경배를 통해 재해를 극복하고자 했다. 왕과 제사장은 절대자와의 매개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지배 권력을 확보했다. 절대자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종교적 신론은 지배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객관적 근거가 되어주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인간 개체에게 주체성이 부여되면서 외부의 절대자보다는 내부의 인간성에 대해 천착하게 되었다. 중세에는 신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면 근대에는 인간 개체의 자율성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칸트가 중세 신학의 신 존재증명을 비판하고 실천이성의 요청을 통해 신 존재의 당위를 선언한 것은 근대사상사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을 형상과 색으로 표상하는 대신 도덕적 삶의 이상 속에서 신을 찾으려는 계급적 차등에서 자유와 평등으로, 소수의 자유에서 모두의 자유라는 사회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힘과 권력이 아닌 도덕적 삶 가운데서 신을 찾는 것은 인간 개체의 자율과 자유 속에서 조

화로운 세상을 추구한 근대 정신의 진보성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문명사적으로 근대성은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자연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신비와 주술의 마취로부터 벗어나 내면을 계몽하는 것에서 인간 주체에 숨겨진 신의 속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셋째는 봉건주의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근대성은 오랜 세월 지배해온 고 중세의 외부적 권력을 주체 내부로 수렴하면서 신앙의 양상을 변모하게 했다. 도덕신앙 즉 이성신앙의 대두는 그러한 지각 변동의 증거로서 복종과 숭배의 신앙에서 도덕적 삶을 향한 주체적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2. 도덕신앙(이성신앙)과 최고선(最高善)

‘계시신앙’이 외부 초월자의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이라면 ‘이성신앙’은 인간 내부의 이성에 기초한 ‘도덕신앙’이다. 따라서, 계시신앙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법규(Statuten)’에 의존하는 타율적이지 명령된 신앙이며 이성신앙은 인간 각자에게 내재한 도덕법칙에 기초한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신앙이 된다. 인간 내면의 도덕법칙을 참된 계시라고 본 칸트는 『학부들의 투쟁』에서 “종교란 신에 대한 일체의 숭배의 본질적인 것을 인간의 도덕성 속에 놓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며 참된 신앙은 도덕신앙으로서의 이성신앙이라고 했다.³⁾

칸트의 이성신앙을 도덕신앙이라고도 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이성이 지식에 관한 이성이 아닌 도덕에 관한 이성이기 때문이다. 도덕에 관한 이성을 실천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성 안에 내재한 것이 바

2) 엘리자베스 클레망 외,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옮김 (서울: 동녘, 1996), p.53.

3) 사카베 메구미 외, 『칸트사전』, 이신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2009), p.31.

로 ‘도덕법칙과 자유’의 능력이다. 도덕법칙은 도덕을 관장하는 이성이 자신을 드러낸 결과이며 이러한 드러남은 자유라는 주체적 능력에 기반한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법칙의 의식은 자유의 인식근거이며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도덕법칙과 자유’가 이성에 의해 보장되며, 인간은 이러한 이성의 힘에 의해 신의 존재를 스스로 이해해나갈 수 있다. 즉, 자발적 도덕 행위에 대한 숭고한 이행과 지속 가운데 신의 참모습에 다가설 수 있다.⁴⁾

도덕적 의식과 행위가 신(神)을 배제한 윤리학의 범주에서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라는 종교적 범주로 발전하는 근거는 ‘최고선(最高善, das höchste Gut)’에 있다. 최고선이란 목적으로 삼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칸트에게 그 최고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원적 최고선으로서의 신(神)이며 나머지 하나는 파생적 최고선으로서의 도덕적 세계이다. 칸트가 신을 최고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결핍된 요소를 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결핍된 것은 도덕성과 행복의 완전한 일치이다.⁵⁾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과 행복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못하는 것에서 칸트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발견했고 그 완전성을 신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즉, 칸트에게 있어 신은 최고선으로서 도덕적 완전성과 행복의 완벽한 일체를 구현하고 있는 존재이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그래서 종교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⁶⁾

최고선에 대한 동경과 그 도달에 대한 의무감은 도덕적 이성으로서의 실천이성에 의해 인간에게 나타난다. 인간의 정신은 무한성의 영역

4) 같은 책.

5) 같은 책, “신과 영혼의 불사는 최고선의 가능성의 필연적 제약으로서 요청되는 것들이다. 최고선은 덕과 행복의 일치이다. 본래 덕과 행복은 이종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칸트가 확신하는 바에 따르면 덕이 있다는 것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필요로 하고 사실 행복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일체의 힘을 지니고 있을 이성적 존재자 -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럴 것이겠지만 - 의 완전한 의욕과 도대체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2), p.272.

에 있지만 육체는 유한의 영역에 있다. 이러한 양면성에 의해 인간은 이상(理想)을 마음 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욕망을 이겨내고 이성이 요구하는 도덕법칙에의 의무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한편으로, 최고선의 실재가 늘 이러한 도덕법칙의 이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기대어 설 절대적 근거가 되며 또한 도덕적 행위를 통해 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신앙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부연하자면, 칸트는 이념적 영역에 속한 ‘최고선’과 ‘영혼 불멸’ 그리고 ‘신의 존재’를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도덕적 이성인 실천이성에 기반한 도덕적 능력과 그 실천을 통해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고 그 속에서 ‘최고선’과 ‘영혼 불멸’ 그리고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말하고 있는 ‘이성신앙(도덕신앙)’은 이처럼 실천 이성으로부터 발현하는 신앙이다. ‘이성신앙’이라는 개념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된다. 그 설명에 의하면 이론적인 방법에 따라 규명된 신은 목적에 의해 세계를 만든 창조자이며 이러한 신 이해에 기반한 신앙을 ‘교설적 신앙’이라고 한다. 칸트는 이러한 교설적 신앙은 지식에 기반하는 신앙이므로 늘 그 실존적 증명에 대한 강박증을 갖게 되며 따라서 동요되기 쉽고 불안정한 신앙이라고 한다. 반면 이성신앙은 강한 도덕적 의지와 실천을 통해 늘 신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정성으로 도덕적 의지와 실천을 지속한다면 늘 그 덕과 함께 신성성이 뒤에서 근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성신앙은 교설적 신앙보다 더 진실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⁷⁾

3. 도덕종교로의 이행에서

칸트에게 있어 도덕은 곧 종교로의 이행을 전제한다. 그의 윤리학은 도덕 그 자체만을 논하는 것이 아닌 신과 종교의 영역으로 필연적

7)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2,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6), pp.951-952.

으로 확장해 있다. 이 지점이 대순사상의 윤리관이 칸트의 윤리관과 상통하고 서로의 소통이 가능한 지점이다. 앞선 논의와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도덕의 종교적 이행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다시 칸트의 도덕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칸트는 도덕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기적 욕심에 더욱 가깝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한 도덕적 삶보다는 도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직 이성으로부터 기인한 순수한 도덕적 선의지에 의한 완벽한 도덕적 삶이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참된 삶으로 보았다. 그러한 도덕적 삶이 완전성에 가까워질 때 인간은 ‘신의 나라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최고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때 종교로 나아가게 된다.⁸⁾

이렇게 형성된 종교적 신앙을 ‘이성신앙’이라 한다. 주목할 점은 이 이성신앙으로의 이행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의지⁹⁾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인간이 이성에 의해 최고선을 요청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의 필연적 작용이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 삶 끝에 신을 향해 가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8) 사카베 메구미 외, 앞의 책, “이제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람들은 결코 도덕을 행복론으로, 다시 말해 행복을 나눠 갖는 지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은 오로지 행복의 이성적 조건(不可缺의 條件)과 상관이 있지, 행복의 획득 수단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의무들만을 부과하고, 이기적 소망들에게 방책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도덕이 완벽하게 개진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이전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떠오를 수 없었던, 최고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오고자 하는), 법칙에 기초한 도덕적 소망이 각성되고, 이를 위해 종교로의 발걸음이 내디딘 연후에는, 이 윤리설 또한 행복론이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희망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어서만 개시되기 때문이다.”

9)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2, p.931

10) 사카베 메구미 외, 앞의 책, “무릇 최고선의 촉진과 그러므로 그것의 가능성의 전제는 객관적으로 (그러나 단지 실천 이성을 좇아서만) 필연적이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그런데 이 선택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자유로운 관심은 현명한 세계 창조자를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므로, 여기서 우리의 판단을 규정하는 원리는 요구[필요]로서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객관적으로(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의 촉진 수단으로서 도덕적 의도에서 동의하는 준칙의 근거, 다시 말해 순수한 실천적 이성 신앙이다. 이 순수한 실천적 이성 신앙은 그러므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

칸트는 도덕의 최종 목적지가 곧 종교임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¹¹⁾ 인간의 도덕적 의지의 완전성이 최고선과 신을 요청하고 도덕적 삶은 종교적 삶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때 인간은 종교 속에서 도덕을 행함으로써 신의 이름으로 도덕적 삶을 실행한다. 이로써 인간 삶의 최종 목표와 신의 최종 목표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이 최종 목적지로서 종교에 이를 때 도덕은 신의 이념이라는 절대 근거를 얻게 되고 동시에 신의 뜻 아래 도덕의 완성을 지상에서 희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칸트는 신의 절대성과 완전성의 가치를 도덕 속에 부여함으로써 도덕적 완전성 속에서 신 존재의 당위를 해명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성의 완전성에 가까워지는 만큼 신에게 가까운 것이다.¹²⁾ 도덕을 통한 신 존재의 해명 방식¹³⁾은 서양철학사에서 칸트가 처음으로 시도한 독창적인 방식이다. 도덕적 최고 입법자이자 도덕 그 자체로서의 신의 현존을 논하는 이상 칸트의 도덕은 곧 종교적 신에 대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지적인 것으로서 도덕적인 (명령된) 의도에 유익하고, 게다가 이성의 이론적 요구 [필요]와도 일치하는, 저 [신의] 실존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성 사용의 기초에 두도록, 우리 판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마음씨에서 저절로 발생한 것이다. 이성 신앙은 그러므로 건전한 사람에게 있어서조차 때때로 자주 동요하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무신앙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11) 같은 책, “그러므로 도덕은 불가피하게 종교로 인도된다. 도덕은 종교를 통하여 강력한 도덕적 입법자의 이념을 인간 밖으로 확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입법자의 의지 속에 있는 (세계 창조) 최종 목적은 인간의 최종 목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최종 목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12) 같은 책, “나는 이제 이 개념을 실천 이성의 객관과 목고자 하며, 여기서 나는 도덕 원칙은 이 개념을 오로지 최고로 완전한 세계 창조자를 전제하고서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바이다. 세계 창조자는 나의 거동[태도]을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그리고 가능한 모든 미래에서 나의 마음씨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르기까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전능하지 않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향존, 영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인 최고선 개념을 통해 최고 존재자로서 근원 존재자 개념을 규정한다. 이성의 물리학[자연학]적인 (그리고 더 높이 전개된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전 사변적인 진행은 이를 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신 개념은 근원적으로 물리학[자연학]에, 다시 말해 사변 이성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에 속하는 개념이다.”

13)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2, p.941.

Ⅲ. 대순사상의 윤리도덕적 지향성과 도덕신앙 (이성신앙)적 특성

1. 윤리도덕적 지향성과 도덕적 주체성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¹⁴⁾

위의 도전님 훈시를 볼 때, 우리는 대순사상의 신앙과 수도에 있어 도덕 실현의 중요성과 그 비중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도의 정의 자체가 ‘인륜을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라면 우리의 수도는 곧 도덕적 선의지와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순진리회 교리의 핵심을 간추린 교리개요를 보면 더욱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양합덕(陰陽合德) · 신인조화(神人調化) · 해원상생(解冤相生) ·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를 종지(宗旨)로 하여 성(誠) · 경(敬) · 신(信)의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 · 안신(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을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 구제창생(救濟蒼生) · 보국안민(輔國安民) · 지상천국(地上天國)건설을 이룩한다.

본 교리개요에는 대순진리회의 궁극적 이념과 그 이념을 이루는 방법이 핵심 용어를 통해 정립돼 있다.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곧 하나의 이념으로 대순사상을 구축하고 있는 가장 근

14) 『대순지침』, p.37.

본적인 원리와 지향점이다. 원리와 지향점으로서의 이념이 규정된 후 실현을 향한 방법론이 이어진다. 그 방법론의 내용은 수도의 근본 항목으로 성(誠)·경(敬)·신(信)이며 세부적 수행으로서 심신이 취할 자세인 안심(安心)·안신(安身)이다. 이러한 수도의 근본 항목과 수행의 구체적 자세는 곧 윤리도덕의 개념 속에 포괄되며 숭상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윤리도덕 속에 궁극의 가치를 부여한다. 윤리도덕의 완성을 통해 인간은 참되게 변화하고 참다운 인간이 모여 목적한바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세계를 자연히 이룬다.

이것이 교리개요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인데 무엇보다 내용의 중심에 바로 윤리도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순진리의 이념과 그 이념의 실현 결과 사이에 윤리도덕이 있다. 성(誠)·경(敬)·신(信) 삼법언과 안심(安心)·안신(安身) 이율령은 도덕군자에 이르는 세부 방법론이며 이 방법을 통해 인간은 윤리도덕적 인간으로 완성되어 이들이 펼쳐내는 삶의 모습이 곧 포덕이며 지상천국이다. 따라서 윤리도덕은 교리개요의 중심에 있으며 이념과 현실적 목적 구현을 중간에서 잇고 종합한다.

교리개요와 함께 대순사상의 윤리적 지향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훈회·수칙이다. 우선 훈회를 보면, 훈회(訓誨)는 개인적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一.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인간(人間)의 모든 죄악(罪惡)의 근원(根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人性)의 본질(本質)인 정직(正直)과 진실(眞實)로써 일체(一切)의 죄악(罪惡)을 근절(根絶)하라.

二.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德)은 도심(道心)의 자취라. 화(禍)와 복(福)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依)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言德)을 특별(特別)히 삼가하라.

三. 척(慼)을 짓지 말라.

…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好意)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慼)을 짓는 행위(行爲)인즉, 항상(恒常)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德)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慼)을 짓지 않도록 하라.

四.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恩惠)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惠澤)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잇고 배반(背反)함이니, 은혜(恩惠)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五. 남을 잘 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基本原理)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根本理念)이라….

훈회의 실천을 강조한 도전님의 훈시를 보면, “훈회를 실천하여 생활화하여야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¹⁵⁾라는 내용이 있다. 훈시에 따르면 훈회는 인존사상과 평화사상을 담고 있다. 훈회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도덕적 생활의 기본 범주인 것이다.

훈회가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중심을 둔다면 수척은 훈회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가정·사회·국가의 윤리 규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一. 국법(國法)을 준수(遵守)하며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준행(遵行)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寄與)하여야 함.
- 二.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만유조화(萬有造

15) 『대순지침』, pp.42-43.

化) 차례(次第) 도덕(道德)의 근원(根源)이라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夫婦) 화목(和睦)하여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룰것이며, 존장(尊丈)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홀(愛恤) 지도(指導)하고, 친우(親友) 간(間)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 三.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戾)를 엄금(嚴禁)함.
- 四.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慼)을 짓지말며, 후의(厚意)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德)을 모름을 괘의(掛意)치 말 것.
- 五. 일상(日常) 자신(自身)을 반성(反省)하여 과부족(過不足)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

국법준수와 사회도덕 준행, 삼강오륜의 실천, 무자기, 언동의 조심과 음덕 쌓기, 일상의 자기 반성으로 정리되는 수칙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담고 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평화는 인간의 주체적인 도덕적 함양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이뤄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교리개요와 훈회·수칙은 종교적 교리이면서도 지극히 인문주의적 성격¹⁶⁾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시나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의존이 아닌 도덕적 수양으로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을 통해 참다운 신앙에 다가가고자 한다. 대순사상이 종교적이면서도 이처럼 인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이성신앙(도덕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6) 인문주의적 성격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자율적이며 주체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대순사상의 도덕신앙적 특성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 생성(生成)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¹⁷⁾

본 구절은 대순사상의 도덕신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절이다.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도(道), 인성(人性), 덕(德), 정신(精神)’과 같이 심도 있는 개념들이 포진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도가 우주 만상의 시원이고 덕은 곧 인성의 신맥’이라는 부분을 보자. 도가 우주 만상의 시원이라면 덕은 인간에게 있어 인성의 새로운 근본이라는 논조를 띠고 있다. 맥(脈)은 기운이나 힘 또는 정기가 흐르는 줄기의 의미¹⁸⁾가 있는데, 신맥에서의 맥의 의미도 그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근간이 되는 계통이나 줄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시원이 도라는 것은 우주가 도를 근본으로 하여 펼쳐진다는 것이고 덕이 인성의 신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덕을 근간으로 하여 발현되어 펼쳐진다는 뜻이 된다.

무엇보다, 위 구절을 도덕신앙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은 덕과 정신이다. 덕과 정신은 곧 인간 주체의 가능성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선 덕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덕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인격적 능력’이나 ‘윤리적·도덕적 선(善)에 대한 의지(意志)의 항상적 지향성(恒常的志向性) 및 선을 실현하는 항상적 능력’¹⁹⁾이다. 또는 한 존재의 고유한 본질이나 그 본질을 발현하는 능동적 힘을 의미

17) 『대순지침』, p.44.

18) 《국립국어대사전》, 「맥」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4. 5. 31. 검색).

19) 《두산백과사전》, 「덕」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5722, 2024. 5. 31. 검색).

한다. 이것으로 볼 때 덕은 인간의 본성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능력 가운데서 도덕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덕의 이러한 사전적 의미 이외에 무엇보다 덕 개념의 형성 유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단어의 형성 과정 속에 덕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추가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德)의 본 글자는 선행(善行)이라는 뜻으로서의 덕(惠)이며 언다는 뜻의 '득(得)'에 기반한다.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고 안으로 나에게 얻어진 것”이라 되어있고, 이에 대한 단옥재(段玉裁)의 주석은 “안으로 나에게 얻어진 것이란 몸과 마음에 체득된 것이요,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 되어있다. 따라서, '득(得)'은 곧 존재자 내면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며 이것을 발현한 상태를 얻음이라는 뜻인 '득(得) 또는 '체득'의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본성의 발현이 밖으로 전해져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의 의미까지 확장된다. 다시 말해, 덕은 내면의 본성을 발현하여 그것을 바깥으로 베푸는 능력과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삶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뜻하기도 한다.²⁰⁾

이처럼 덕은 이상(理想)을 담은 개념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타의 개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의 폭이 확장된다. 그중 하나가 도(道)와 덕의 도덕이다. 도는 진리 자체의 모습을 의미하는 데 대해 덕은 인간 내면을 통해 드러난 진리의 지성적 각성이자 실천적 전개의 모습이다. 그래서 도덕은 '진리의 인격적 현현(顯顯)'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才)와 덕의 재덕이 있다. 재능으로서의 재가 일 처리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뜻한다면, 덕성은 이 능력이 선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재덕은 일 처리의 능력과 도덕적 품성의 균형 및 조화를 의미한다.²¹⁾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310>, 2024. 5. 31. 검색).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310>, 2024. 5. 31. 검색).

덕의 구체적 요목인 덕목(德目)에는 오륜(五倫)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나 청렴·성실·경건·곧음·정직·겸양 등이 있다. 공자는 이 덕목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덕목을 인(仁)이라 하였다. 다른 여타의 덕목은 인의 근원적인 힘에 기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또한 덕이란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내려준 인간성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은 덕이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인간 전체의 보편적 능력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정신[精神, Geist]이다. 정신이라는 말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전개된 양상은 서양철학사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서양철학사의 논의를 통해 정신 개념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의의 스펙트럼을 거쳐 인간 정신이 가진 주체적 속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신이라는 말은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의 상대개념으로 ‘숨·공기·마음·영혼’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정신이 인간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근본적 힘으로 부각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 근대의 문을 연 데카르트 때부터이다. 그는 인간이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다른 만물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였다. 인간의 주체성을 정신을 통해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그는 근대²³⁾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는다.

헤겔은 인간 의식의 작용과 우주의 근원적 원리로서의 절대정신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신을 규명했다. 인간 의식의 최종적인 상태가 정신이며 이것은 우주의 근원적 실재로서의 정신과 동일한 것이다. 헤겔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신(神)의 차원에서 해석하려 했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의 역량을 신과 일치시켰다.

칸트에게서 정신은 이성과 의지에 관계하는 마음의 활동성으로 ‘이념을 통해 작용하는 의식의 힘’이다. 인간이 이념(Idee)을 실현하려는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310>, 2024. 5. 31. 검색).

23) 근대시대는 물질문명의 혁신과 함께 인간 개체의 자유와 주체성이 그 본질이 된다.

이성적 의지는 이러한 정신의 능력에 기인한다. 그는 정신이 물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유 의 정신’이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이라 했다.²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조금씩 다른 견해도 있지만, 정신에 대한 공통적 입장은 정신이란 ‘인간의 무한성과 자유, 주체성’을 보장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²⁵⁾

덕과 정신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기반으로 처음의 『대순지침』 구절인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 생성(生成) 변화의 법칙이고, 덕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의 원동력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만이 새로운 맥이 될 것이다.”²⁶⁾을 다시 살펴보자. 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덕과 정신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의 근거이다. 정신은 순수한 의식적 활동성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정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윤리도덕의 인격적 능력이다. 따라서, 도는 우주 만상의 시원이며 이 만상의 시원으로서의 도가 인간의 정신 속에 현현된 상태가 덕이다. 이 덕이 인간 본성의 근원적 즐거움으로서 새로이 제시되는데, 이 즐거움으로서의 도덕적 역능이 정신의 활동성에 있어 주요 작동 원리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와 덕 그리고 정신 이 세 주요 개념으로 구성된 『대순지침』 구절은 절대 진리의 실체로서의 형이상학적 도를 근거로 두고 인간 주체의 정신 속에 그 도를 투영시킨다. 그것이 덕으로 나타나며 그 덕은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실천 능력이다. 이로써 인간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지위가 입증되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의 ‘자유와 주체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인간은 윤리도덕의 실현을 통해 도와 가까워지며 도의 실체를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순사상의 윤리도덕관이 가진 이성신앙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4) 사카베 메구미 외, 앞의 책, p.369.

25) 같은 책, p.369.

26) 『대순지침』, p.44.

IV. 결론

칸트가 말한 이성신앙의 주요 골자는 도덕적 완전성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가까워질 수 있고 나아가 신을 이해하고 그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해의 과정은 오롯이 인간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성이라는 정신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대순사상이 취하는 윤리도덕관은 지극히 이성신앙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의 원동력으로서의 새로운 맥을 윤리도덕이라고 한 것은 윤리도덕적 지향성에 정신작용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수양론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인간이 인륜 도덕을 지키지 못하면 도통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대순지침』 속에 강조된다. 이처럼 윤리도덕은 우리 수행의 중심에 위치하는 신앙의 표본이자 정도(正道)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사상의 윤리도덕적 지향성은 칸트의 이성신앙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순사상의 윤리도덕관과 칸트의 이성신앙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대순사상의 윤리도덕적 지향성이 칸트의 이성신앙과 상통하여 충분히 이성신앙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순사상에서 윤리도덕관은 수행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또한 신앙생활의 근본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의 목적인 도통은 윤리도덕을 지켜나가는 데 있으며 신앙생활의 모본도 참된 성품을 살피는 데 있었다.²⁷⁾

이성신앙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계몽주의적 의의이며 다음 하나는 인간 주체의 자유이며 나머지 하나는 유

27) 『대순지침』, p.75. “도성덕림은 성(誠)·경(敬)·신(信)에 있으니 이 참뜻을 순서 있게 전하여 신앙심을 깊게 하도록하라.”,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지느니라.

한자로서의 인간이 무한자로서의 신에게 다가서는 문제이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성으로써 미신과 광신의 미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며 ‘인간 주체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사에 관한 문제로 인간은 누구나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과 신의 관계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발현해 나가면서 신을 닮아 간다. 신의 궁극적 본성 가운데 하나가 ‘자유(自由)’인데, 인간은 도덕적 완전성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구현하며 신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듯,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 실현은 윤리도덕적 수행과 신앙에서 시작해서 그것으로써 마무리된다. 수행에 있어 윤리도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도덕적 실력이 곧 도력(道力)이다. 절대자의 품 안에서 모든 만물이 자유롭게 노닐 듯 인간은 도덕적 진심 속에서 서로가 자유롭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만물이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는 세상 그 세상을 열어가는 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도덕 군자(道德君子)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_____,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백종현, 『철학의 주요개념』,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 사카베 메구미 외, 『칸트사전』, 이신철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2009.
- 엘리자베스 클레망 외, 『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옮김, 서울: 동녘, 1996.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2.
- _____, 『순수이성비판』 2,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6.
- 《국립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두산백과사전》 <https://www.doopedia.c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ity of the Faith System of
the Daesoon Jinrihoe: Centering around the Concept
of Kant's Moral Beliefs**

Kim Dae-hyeon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Modernity is every individual's demand for human life. The period of modern era may be the period when the omnidirectional movement toward the humanistic orientation of freedom, equality, peace, and love from oppression, confrontation, and inequality was maximized.

Mentioning modernity and contemplating modernity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reading the mental awareness of a country organization. In world history, Europe's historical activities toward modernity continue to this day and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world culture and civilization.

On the other hand, Korea's modern achievements are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compared to the greatness.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to the modern legacy of the Kang Jeungsan' Daesoon Jinrihoe makes us feel a lot of regret when considering the case of Europe. Europe put its modern heritage at the forefront of history and formed a national consensus to make it a

driving force for growth. It is the result of an understanding of its own spiritual heritage and pride.

The fundamental origin of Korea's modern spirit lies in the thought of Kang Jeung-san and his 'Cheonji Gongsu'(天地公事; Reordering of the Universe). The DaesunJinrihoe who has succeeded the kang Jeung-san has made the reverence and realization of ethical morality the fundamental value for the new era. Kant's understanding of the absolute being through moral beliefs forms a point of contact with the religious view of Daesoon thought which honors ethical morality, and here it reaffirms the modern value of Daesoon thought.

Keywords: modernity, Daesoon Jinrihoe, rational faith, ethics, morality